

보도일시

2026. 7. 28.(화)

배포

2026. 7. 28.(화)

동해해수청, 해양 이용객 편의 위해 인구항방파제등대 디지털 시계 새 단장

- 시계 LED 세그먼트 교체로 시인성 개선...정확한 시간정보 제공 및 이용객 불편 해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양양 인구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인구항방파제등대 상단에 설치된 디지털 시계의 시인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인구항방파제등대는 양양 인구해수욕장을 찾는 서핑객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 명소이다. 등대 상단의 디지털 시계는 해양 레포츠 활동과 관광 중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계의 일부 LED 세그먼트 식별 저하로 시간 확인이 어려워 해양 레포츠 이용자 및 관광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 양양군 해수욕장(21개소)을 찾는 연간 피서객 약 83만명('25년 기준)

이에 동해해수청은 디지털 시계의 표시 불량 원인을 점검하고 손상된 LED 세그먼트를 교체하는 등 기능을 복원하고,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 완료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편의시설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이용객은 해양활동 중 정확한 시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불편 사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지 공공편의시설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관광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인구항방과제등대를 찾는 국민들이 작은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레포츠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철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이유경 (033-520-6279)





인구항방파제등대 전경